

# 담양 찾은 체류인구... 등록인구의 7.7배 달해

3개월 내 재방문을 45%  
77개 맞춤 인구정책 편성

전라남도 담양군이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에서 전라남도 16개 인구감소지역 중 생활인구 1위를 기록했다.

해당 기간 담양군의 평균 생활인구는 39만8258명으로 이 중 체류인구는 35만2545명,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등록)는 4만 5712명으로 나타났다.

1일 담양군에 따르면 체류인구는 등록인구의 7.7배에 달하며 이는 지난 2분기와 3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1위 기록이다.

생활인구는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체류하며 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포함된 인구다. 통근, 통학, 관광 등의 목적으로 하루 3시간 이상 머문 날이 월 1일 이상인 '체류인구'와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국내거

소신고자인 '등록인구'를 더한 지표다.

2024년 12월 기준 타시도 거주자 비중은 83.7%로 인구감소지역 전체 평균 66.5%보다 컸으며 3개월 내 재방문을 역시 45.5%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재방문을 43.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22.1%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나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분포해 세대 구분 없이 다양한 방문 수요가 있음을 보여줬다.

군은 오는 9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정원문화원을 비롯해 군민생활체육공원·반다비체육센터·파크골프장 등의 체육시설과 남부권 광역관광 야간 콘텐츠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생활인구 유입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인근 장성군과 관광활성화 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연계 프로그램 개발과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등 타 지자체와의 협력에도 힘쓰고 있다.

생활인구 확대와 정주 유도를 위해



담양군 죽녹원에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잇따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4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산정 결과 생활인구 1위를 달성했다. 담양군 제공

2022년부터 총 269억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 34개 사업을 추진 또는 완료했으며 출생기본수당 등 생애주기 맞춤형 인구정책 77개 사업에도 21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도내 생활인구 1

위라는 성과에 걸맞게, 체류에서 정주로 이어질 수 있는 맞춤형 콘텐츠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지역의 활력 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전방위적인 인구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담양=신재현 기자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행 곡성군, 양·한방 진료 등 지원 석곡·목사동·죽곡면 농업인 대상

전라남도 곡성군이 지난달 29일 석곡면 종합회관에서 석곡농협과 협력해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를 운영했다고 1일 밝혔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는 교통이 불편해 병원 방문이 어려운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사업이다.

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됐으며 석곡면·목사동면·죽곡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농업인 400여 명이 진료를 받았다.

의료지원에는 광주 원광대 한방병원, 광주 센트럴 윤길중 안과, 광주 하트치과, 대한의료봉사회 등 4개 기관의 전문 의료진이 참여했다.

이들은 양·한방 진료, 침 시술, 근골격계 질환 진료, 영양제 처방, 시력검사·검안, 구강검사 및 구강 건강 교육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곡성군 관계자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촌왕진버스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김대영 기자

## 탐방형 관광 프로그램 운영 화순군, 지역 자원 연계 방식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은 오는 9월까지 화순 문화유산과 자연경관을 하나로 엮은 체험형 해설 관광프로그램 '2025 화순 역사문화탐방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문화관광해설과 현장 체험을 접목한 이번 사업은 지역 고유 자원을 체계화한 탐방 콘텐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탐방 프로그램은 △'화순야경 코스'와 △'화순적벽 코스' 두 노선으로 구성됐으며 총 8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각 회당 60명 이내로 사전 모집을 통해 진행되며, 전문가와 해설사가 동행해 참가자들에게 장소별 역사·문화 해설을 제공한다.

'화순야경 코스'는 환산정, 개미산 전망대, 꽃강길 음악분수, 남산공원 등을 중심으로 저녁 시간대에 운영된다.

고즈넉한 정자 문화와 도심 속 자연경관을 아우르는 코스로 여름철 관광객들의 충분한 체류 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기획이다.

'화순적벽 코스'는 광주(소태역)에서 출발해 장항·보산·물염·창랑 적벽 등 화순 대표 경관지를 둘러보며 광역 관광 수요까지 고려한 노선이다. 탐방에는 부대 체험 프로그램과 현장 퀴즈, 만족도 조사도 포함된다.

재단은 모든 참가자에게 단체버스와 여행자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되 프로그램 운영 일정상 식사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현장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요원과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해설사가 동행하며 기상 상황 등 변수에 따라 일정과 코스는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자세한 일정·내용·신청 방법은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https://www.hfc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종천 (재)화순군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프로젝트는 화순의 역사성과 생태자원을 단순 관람이 아닌 경험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다"며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관광 콘텐츠로의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함평군해보면복지기동대원들이 지난달 26~27일 이틀간 관내 독거노인 가구를 찾아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함평군 제공

## 함평군해보면복지기동대, 주거 개선 봉사활동

전라남도 함평군 해보면 복지기동대가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봉사활동을 펼쳤다.

1일 함평군에 따르면 해보면 복지기동대가 지난달 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장애인과 독거노인 가구 등 세 가정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해보면 복지기동대는 가구별 주거 여건을 세심히 살핀 후 주방 단열과 도배,

문 교체 등 각 노후 공간을 정비해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했다.

해보면사무소는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해 주민의 전반적인 생활 여건 향상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번 활동은 민·관이 협력해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노용균 해보면 복지기동대장은 "기동

대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봉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꾸준히 현장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

정선희 해보면장은 "이번 봉사를 통해 이웃 간 따뜻한 정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복지 체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

## 장성군, 김영호 국회의원 초빙 아카데미 강연

### 내일 예술회관 소공연장서

장성군은 오는 3일 '장성아카데미'에 김영호(사진) 국회의원이 강연자로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김 의원은 북경대학교 국제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서강대학교 대학원 중국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특별시장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

'서울 서대문'에서 3선에 성공했으



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제22대 국회의원 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저서로는 '중국, 차이를 알면 열린다'가 있다.

김영호 의원의 이번 강연 주제는 '나의 고향과 아버지, 그리고 정치 이야기'다. 장성 출신 아버지 김상현 전 국회의원의 삶과 정치철학을 돌아보고 '김영호의 정

치'를 장성군민과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년 유입, 교육환경 개선, 폐교 위기 대응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소통할 예정이다.

세계 최장기간 운영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장성아카데미는 매월 첫째,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린다. 오후 4시 장성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 오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전신청 없이 입장할 수 있으며, 장성군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청강도 가능하다. 자료 공유를 동의한 강의 영상은 군 누리집과 유튜브로 다시 볼 수 있다.

장성=유봉현 기자

## 수질오염사고 대응 합동 방재교육 영산강유역환경청, 권역별 하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일과 4일, 수질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합동 방재 교육을 나주시와 순천시에서 각각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수질오염방재 전문 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오염사고시 1차적으로 대응하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영산강권역은 나주 영산천에서, 섬진강권역은 순천 서천에서 나누어 실시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수질오염사고 상황 전파 방법, 사고유형별 대응 요령, 방재 장비·물품 전시 및 사용 방법 등을 익히고, 실제 하천에서 오일펜스 설치, 흡착 붐 체결 방법을 실습하는 것으로 실무역량을 키울 예정이다.

지난 금호타이어 화재에서도 지자체 담당자들의 신속 대응으로 오염수의 확률강 유입을 막을 수 있었다.

담당자들이 방재장비 사용법을 현장에서 직접 실습함으로써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우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수질오염 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수질오염사고 목격 시 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